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는 위험요소의 종류와 정책적 대안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은 전쟁, 무력도발, 국지분쟁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conventional security)개념에서 자연재해와 재난위기, 국가의 핵심기반의 위기, 국민생활안전의 위기를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이다.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은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의 통합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안보 위험요인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가 처한 환경에서 안보의 위험요인은 공간적 그리고 시계열적으로 1) 국내에 내재화된 대내적 위험요인, 2) 외부에서 기인하는 대외적 위험요인, 그리고 3) 통일에 따라 한반도에 나타날 통일통합의 위험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위험요인 중 과거부터 상존해온 대내적 위험요인은 (1) 이념갈등, (2) 지역갈등, (3) 계층갈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시점에서 세계화와 국제화를 통해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와 교류와 협력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대외적 위험요인은 (1) 다문화통합, (2) 사이버 범죄, (3) 국제범죄·테러위협, (4) 혐한류의 확산을 의미한다. 끝으로 미래에 남북한 간의 통일을 추진함에 따라 한반도에 등장할 통일국가에서 국가의 통일과 사회의 통합 과정에 나타나게 될 위험요인은 (1) 기회균등, (2) 시장경제통합, (3) 문화이질성이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이들 3개 분야 10개 안보위협 요소에 대한 국내의 전문가들의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1.14) 발표자료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분석의 결과
 - 가. 기술통계: 공간이론
 - 나. 분석통계: 구조방정식 모델
4. 결론

1. 들어가는 말

- 새롭게 등장하는 안보 패러다임은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의 통합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의 위협요인을 입체적으로 인식하려는 필요성이 부상
 -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은 전쟁, 무력도발, 국지분쟁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conventional security)개념에서 자연재해와 재난위기, 국가의 핵심기반의 위기, 국민생활안전의 위기를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
 - 포괄적 안보의 대상으로 고려되는 재난, 질병, 환경, 마약,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 테러리즘 등 다양한 분야를 단편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사회의 불균형적 발전과 그에 따른 불협화음과 무질서 상태의 사회는 국가의 안보에 위협요인으로 인식
- 안보패러다임의 변화로 사회·문화 영역에서 기인하는 안보 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과제
 - 21세기의 국제질서는 복합적 네트워크질서와 국제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안보개념의 적용이 필요함
 - 한국사회의 발전은 국제화와 통일시대라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지리적 영역의 한반도로 확대가 필요한 시점
 - 새로운 차원의 안보위협으로 논의되는 사이버 범죄,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에너지 및 식량안보, 환경 문제, 실패한 국가의 인권 문제 등의 원인은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의 불균형, 부조화, 불합리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
 - 대외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부터 국가의 핵심이익을 추구하는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국제화·세계화를 추진해왔고, 발전된 국가위상에 부응하여 국제화의 조류가 자연스럽게 확대되면서 21세기를 맞이하여 그 성과가 외교·안보,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음
 - 국제화의 성공적 수행으로 인한 국익의 다면화라는 긍정적 효과의 이면에는 그림자처럼 부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위협요소들을 방지할 경우 국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위기가 전통적 안보 영역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포괄적 안보가 중시되는 21세기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입지와 위상을 고려할 때, 한국이 포함되는 포괄적 의미에서 한반도의 사회·문화 영역에서 제기되는 안보위협을 국내외 전문가들의 판단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
 - 안보 문제에 있어서 사회·문화 분야의 중요성은 증가하는가?
 - 한반도가 경험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사회·문화 분야에 안보위협の本질은 무엇인가?
 -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 분야에서 안보위협的 상호관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 끝으로 앞의 논의에 근거해서 한반도가 경험하는 사회·문화 분야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 지리적으로 확대된 한반도의 비전통안보 분야의 위협의 중점을 사회·문화 영역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사회·문화적 위험요인을 기원에 따라 분류
 - 1) 국내에 내재화된 대내적 위험요인, 2) 우리 사회의 외부에서 기인하는 대외적 위험요인, 그리고 3) 남북한 통일에 따라 한반도에 나타날 통일통합의 위험요인으로 나누어 각 분야의 구체적인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분석
 - 안보위협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계열적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에 내재화된 위험요인을 과거로부터 지속되는 위험요인으로, 우리 사회의 대외적인 환경에서 기인하는 위험요인을 현재에 발생하여 지속되는 위험요인으로 그리고 통일한국에 나타날 국가통합과정에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미래의 위험요인으로 연계하여 과학적으로 이해
- 대내적, 대외적, 그리고 통일통합의 위험요인은 각각 아래의 요소들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함
 - 위의 논의과정에서 과거부터 상존해온 대내적 위험요인은 (1) 이념갈등, (2) 지역갈등, (3) 계층갈등으로 구성
 - 현재 시점에서 세계화와 국제화를 통해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와 교류와 협력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대외적 위험요인은 (1) 다문화통합, (2) 사이버 범죄, (3) 국제범죄·테러위협, (4) 혐한류의 확산으로 구성
 - 미래에 남북한의 통일을 추진함에 따라 한반도에 등장할 통일국가에서 국가의 통일과 사회의 통합과정에 나타나게 될 위험요인은 (1) 기회

*안보 문제에 있어서
사회·문화 분야의
중요성은 증가하는가?
한반도가 경험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사회·문화 분야에
안보위협的 본질은
무엇인가?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 분야에서
안보위협的
상호관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과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내적 위협요인도 특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지 않는다면 미래의 한반도 안보에 이념갈등, 지역갈등, 빈부갈등은 다문화사회에서 그리고 통일사회에서도 여전히 상존하는 위협요인이다...

- 균등, (2) 시장경제통합, (3) 문화이질성으로 구성
- 대내, 대외, 통합의 위협요인을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계열적으로 고려하면 대내적 위협요인은 과거에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해왔고, 대외적 위협요인은 현재 위협요소로 부상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아래의 <표 1>에 보여줌

<표 1> 위협요소의 시계열별 분포

		시점		
		과거	현재	미래
위험 원인	대내위험요인	1. 이념갈등	-----	----->
		2. 지역갈등	-----	----->
		3. 계층갈등	-----	----->
	대외위험요인	1. 다문화통합		----->
		2. 사이버 범죄		----->
		3. 국제범죄·테러위험		----->
		4. 혐한류 확산		----->
	통일위험요인	1. 기회균등		----->
		2. 시장경제통합		----->
3. 문화이질성			----->	

- 대내, 대외, 통일의 위협요인은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해결과제라는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과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내적 위협요인도 특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지 않는다면, 미래의 한반도 안보에 있어 이념갈등, 지역갈등, 빈부갈등은 다문화사회에서 그리고 통일사회에서도 여전히 상존하는 위협요인임
 - 통일에 따른 위협요인은 미래의 시점에 중요한 위협요인으로 작용
 -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부상한 대외적 위협요인도 미래 시점에는 통일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위협요인과 혼재하게 되면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기인하는 위협요인이 한반도 안보에 승수효과를 가지면서 위협의 정도가 확대
- 통계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회·문화 영역에서 위협요소에 대한 이론적 배경 아래 실시된 설문 조사를 통해 국내 전문가들의 경우 179명이 응답을 하였으나 이 중에 몇몇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은 설문결과가 12건이 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167명의 응답결과만을 이용하여 분석

- 해외 전문가들의 경우 25명이 응답을 하였으나 이 중에 몇몇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은 설문결과가 2건이 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23명의 응답 결과만을 이용하여 분석

3. 분석의 결과

가. 기술통계: 공간이론

- 분석에 이용된 3개 분야 10가지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를 기술통계를 통해서 설명하면 아래의 <표 2>와 같음

<표 2> 국내 전문가의 한반도 사회·문화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빈도분포				
					5	4	3	2	1
1. 이념갈등	4.15	0.78	2	5	57	87	15	8	0
2. 지역갈등	4.04	0.71	2	5	38	105	17	7	0
3. 계층갈등	3.73	0.78	2	5	21	94	38	14	0
4. 다문화통합	2.75	0.89	1	5	4	31	60	64	8
5. 사이버 범죄	3.59	0.83	2	5	18	84	45	20	0
6. 국제범죄·테러	2.69	0.86	1	5	3	29	56	72	7
7. 혐한류	2.75	0.81	1	5	1	33	61	67	4
8. 기회균등	3.59	0.96	1	5	19	94	26	23	5
9. 시장경제통합	3.22	1.09	1	5	18	60	39	42	8
10. 문화이질성	3.56	0.97	1	5	25	75	39	25	3

국내 전문가
평가(3.41)가
해외 전문가
평가(3.12)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위협에
대한 반응에 유사점과
함께 차이점도
보여주고 있다

- 국내 전문가들과 해외 전문가들의 표본의 크기가 167명과 23명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험요인의 평가에 있어서 국내 전문가 평가(3.41)가 해외 전문가 평가(3.12)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위협에 대한 반응에 유사점과 함께 차이점도 보여주고 있음
- 국내 전문가들은 과거로부터 존재해오던 사회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전체 위험요소 중에서 이념갈등(4.15), 지역갈등(4.04), 그리고 계층갈등(3.73)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현재의 위협 중에서 혐한류(2.75)와 다문화통합(2.75)을 가장 통제 가능한 위협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 사이버 범죄 위협(3.59)을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최근에 나타나는 피싱, 스미싱, 해킹과 같은 다양한 사이버 범죄의 증가 경향에 대한 반응이

**해외 전문가들은
사회·문화 영역의
위험요소 중에
통일위험요인과
대내위험요인을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대외위험요인은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라고 평가
- 통일에 따른 미래의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는 기회균등(3.59), 문화이질성(3.56), 그리고 시장경제통합(3.22)의 순으로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미래의 통일위험요인은 과거로부터 상존하는 대내위험요인보다는 덜 위협적이지만 현재의 대외위험요인보다는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전문가들의 표준편차는 1.0보다 작은 반면에 해외 전문가들의 표준편차는 1.0을 넘어서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1.5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의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나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음

<표 3> 해외 전문가의 한반도 사회·문화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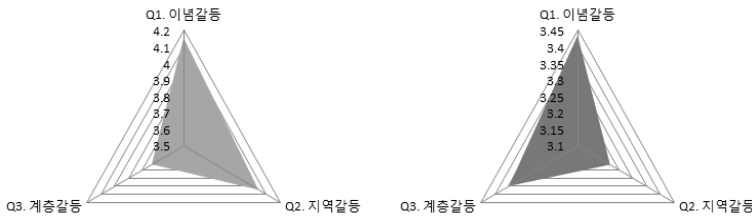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빈도분포				
					5	4	3	2	1
1. 이념갈등	3.43	1.19	2	5	6	5	5	7	0
2. 지역갈등	3.21	1.31	1	5	4	9	2	7	2
3. 계층갈등	3.34	1.15	1	5	3	10	3	6	1
4. 다문화통합	2.69	1.36	1	5	3	4	4	7	5
5. 사이버 범죄	3.13	1.17	1	5	3	6	7	5	2
6. 국제범죄·테러	2.65	1.15	1	5	1	6	3	10	3
7. 혐한류	2.69	1.10	1	5	1	5	6	8	3
8. 기회균등	3.65	1.26	1	5	7	8	2	5	1
9. 시장경제통합	3.30	1.39	1	5	6	5	5	4	3
10. 문화이질성	3.13	1.51	1	5	6	5	2	6	4

- 해외 전문가들은 사회·문화 영역의 위험요소 중에 통일위험요인과 대내위험요인을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대외위험요인은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 전체 위험요소 중에서 현재 위험요소에 해당 하는 대외위험요인에 속하는 국제범죄와 테러의 위험(2.65)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이 다문화통합(2.69)과 혐한류(2.69)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사이버 범죄의 위험(3.13)으로 조사되었지만 다른 위험요인들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통일위험요인에 포함되는 문화이질성(3.13)을 포함하여 대내위험요인과 통일위험요인을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해외 전문가들은 평가함

- 대내위험요인에 있어 국내 전문가들이 지역갈등(4.04)을 계층갈등(3.73)보다 높은 위험요인으로 평가하는데 반해서 해외 전문가들은 계층갈등(3.34)을 지역갈등(3.21)보다 높은 위험요인으로 평가
-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지역갈등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사회·문화적 갈등이 계층 간의 상대적 박탈감에서 기인한다는 일반적 추론에 근거하기 때문으로 평가

○ 이러한 차이는 아래의 <그림 1>과 <그림 2>에 지역갈등과 계층갈등의 면적의 차이로 잘 나타나있고 현재의 위험요인인 대외위험요인에 대한 이해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대내위험요인 국내 전문가 응답 <그림 2> 대내위험요인 해외 전문가 응답



- 해외 전문가들도 사이버 범죄(3.13)를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혐한류(2.69), 다문화통합(2.69), 그리고 국제범죄와 테러(2.65)는 유사하게 위험도가 가장 낮은 요인으로 평가

○ 대외위험요인은 아래의 <그림 3>과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음

- 대외위험요인의 분포의 양상은 뚜렷하게 사이버 범죄를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는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다만 사이버 범죄의 위험에 대해 국내 전문가의 평가(3.59)가 해외 전문가의 평가(3.13)에 비해서 좀 더 높게 나타남

<그림 3> 대외위험요인 국내 전문가 응답 <그림 4> 대외위험요인 해외 전문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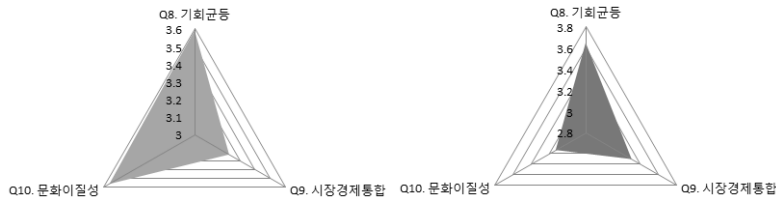
**대내외험요인에 있어
국내 전문가들이
지역갈등(4.04)을
계층갈등(3.73)보다
높은 위험요인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서
해외 전문가들은
계층갈등(3.34)을
지역갈등(3.21)보다
높은 위험요인으로
평가한다**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이 경험하게 될
기회균등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내(3.59)와
해외(3.65)
전문가들이
유사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해외 전문가들이
좀 더 심각하게
평가한다**

- 한국사회에 사이버 범죄의 증가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국제 범죄와 테러는 새롭고 부상하는 초국가적 위협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테러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음¹⁾
- 국제범죄의 심각성도 마약밀수 수준에 그치며 발생빈도가 높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며 테러조직, 범죄조직, 마약조직의 연계 가능성도 사실상 낮고, 국내에 국가의 법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조직범죄 조직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범죄조직과 연계된 범죄행위 역시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²⁾
- 대외위협요인은 국내 전문가와 해외 전문가의 응답에 별다른 차이가 없이 사이버 범죄를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문화통합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2.75)평가가 해외 전문가(2.69)평가보다 조금 높게 나옴
- 이러한 평가는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범죄와 테러에 대한 평가는 국내(2.69)와 해외(2.65) 전문가들의 평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이 경우에도 국내의 평가가 해외보다 조금 높게 나온 것은 범죄와 위협에 대한 직접 당사자가 느끼는 위협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님
- 한류의 부정적인 영향의 확산을 의미하는 혐한류의 확산은 국내 전문가(2.75)의 평가가 해외 전문가(2.69)의 평가보다 높게 나옴 한류에 대한 평가의 결과는 다문화통합에 대한 평가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국사회가 한류의 확산으로 인한 일반적 기대의 상승, 국민으로서 자긍심 고취, 국력의 상승, 경제적 파생효과에 따른 반사이익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이를 유지 및 확대하는 데 대한 전략적 부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반해서 해외 전문가들의 경우는 이러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보다 원만한 평가를 제시한 결과로 보임

- 미래의 위협요인에 해당하는 통일위협요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국내와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에 상당히 차별화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이 경험하게 될 기회균등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내(3.59)와 해외(3.65) 전문가들이 유사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해외 전문가들이 좀 더 심각하게 평가함
- 시장경제통합과정에 발생하는 위협요인에 있어서는 국내 전문가(3.22)보다 해외 전문가(3.3)의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기회균등과 시장경제통합과 같은 사회제도의 문제에 있어서 해외 전문가가 국내 전문가보다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이 드러남

〈그림 5〉 통일위험요인 국내 전문가 응답 〈그림 6〉 통일위험요인 해외 전문가 응답



- 이에 반해서 문화이질성의 위험에 대해서는 해외 전문가(3.13)보다 국내 전문가(3.56)의 평가가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문화이질성에 있어서 엇갈리는 평가는 외부인 효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해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남한이나 북한이나 한반도에서 상당기간 같이 살아온 같은 민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적 이질성은 심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임. 이에 반해서 기회균등의 문제나 시장경제로의 통합의 문제는 분단의 시기 동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온 사회주의경제의 독재체제와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체제의 차이점을 극복하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제로 평가됨

나. 분석통계: 구조방정식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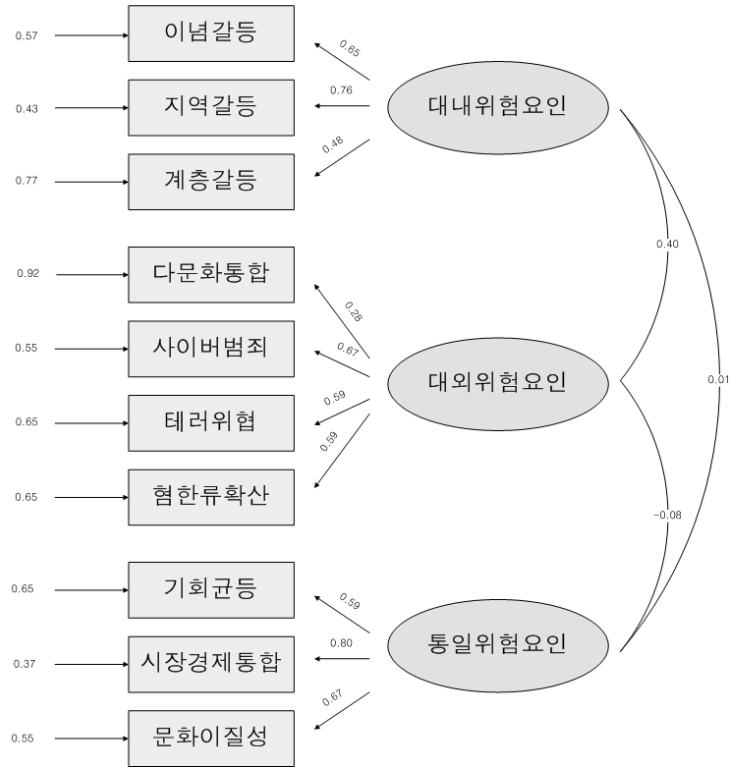
- 구조방정식모델은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사이의 관계 및 방향을 연구자가 사전에 가설로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분석을 실시
 - 잠재변수는 구체적으로 관측되지 않지만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개념적으로 수립된 추상적 개념을 의미
 - 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관측변수를 개발하고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를 기존의 이론에 기초하여 가설화
- 국내 전문가들의 응답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에 따르면 관측변수가 잠재변수에 대한 요인부하 값이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요한 것은 잠재변수에 관련된 관측변수의 요인부하 값인데, 대내위험요인의 경우 국내 전문가들의 반응은 지역갈등 0.76, 이념갈등 0.65, 그리고 계층갈등 0.48의 순서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내위험요인이라는 잠재적인 개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도를 지역갈등, 이념갈등, 계층갈등의 순서로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잠재변수인 대외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사이버 범죄 0.67, 국제범죄와 테러위험 그리고 혐한류의 확산은 모두 0.59, 그리고 다문화통합은 0.28로 각각 나타남.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기회균등의 문제나
시장경제로의
통합의 문제는
분단의 시기 동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온
사회주의경제의
독재체제와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체제의
차이점을 극복하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제로
평가된다*

사회·문화 영역
한반도 위험요소
수준판단에 있어서
시장경제로의 통합이
가장 어려운 과제를
의미하며 그 뒤를 잇는
지역갈등이
한국 정치과정에
전통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외위험요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도의 순서로 사이버 범죄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국제범죄와 테러위험과 혐한류가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며, 다문화통합은 가장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이 결과는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경각심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그림 7〉 사회·문화 영역 위험요소 구조방정식 모델(국내 전문가 설문조사)



- 마지막 잠재변수인 통일위험요인에 대한 결과는 시장경제통합 0.8, 문화이질성 0.67, 기회균등 0.59로 나타남. 이 결과는 통일 한반도가 형성되었을 때, 시장경제통합이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그 다음으로 문화적 이질성의 극복과 기회균등의 문제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의미
- 사회·문화 영역 한반도 위험요소 수준판단에 있어서 시장경제로의 통합이 가장 어려운 과제를 의미하며 그 뒤를 잇는 지역갈등이 한국 정치과정에 전통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
- 잠재변수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과거로부터 상존하는 대내위험요인과 현재 시점에 부상한 대외위험요인은 상호 양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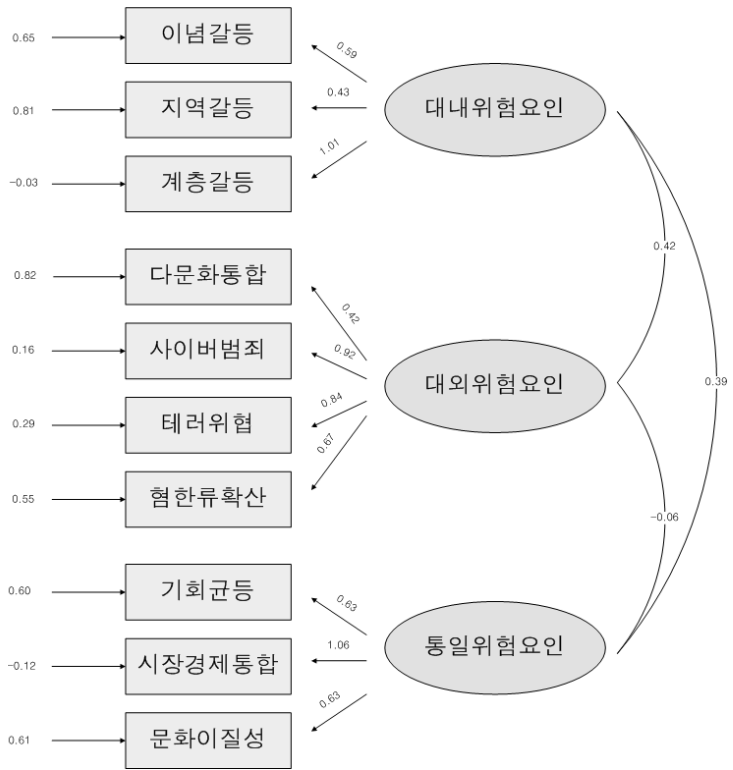
관관계(0.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과거로부터 상존하는 대내위험요인과 미래의 통일 한반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위험요인도 전자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양의 상관관계(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서 현재 시점에 부상한 대외위험과 미래의 통일 한반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위험요인은 음의 상관관계(-0.0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내위험요인과 대외위험요인을 서로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 다시 말해서 대내위험요인인 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은 현재 시점에 새롭게 부상한 대외위험요인인 다문화통합, 사이버 범죄, 국제범죄와 테러위험, 그리고 혐한류의 확산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상존할 것을 의미함
 - 마찬가지로 현재의 대내위험요인은 통일 한반도의 미래사회에 나타날 통일위험요인인 기회균등, 시장경제통합, 그리고 문화의 이질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상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 이 결과는 한국사회가 전통적인 사회구조에서 국제화를 통한 대외적 요인이 부가되고 통일을 통한 새로운 통합국가가 형성되어도 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으로부터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대외위험요인과 통일위험요인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 현재 시점에 부상한 대외위험요인은 다문화통합, 사이버 범죄, 국제범죄와 테러위험, 그리고 혐한류의 확산과 같이 전통적인 한국사회에 존재하지 않던 위험요인들이지만 이러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사회적 적응은 미래의 통일 한반도에 부각하게 될 통일위험요인인 기회균등, 시장경제통합, 그리고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
 - 실제로 통일위험요인에 속하는 문화이질성과 대외위험요인에 속하는 다문화통합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대외위험요인과 통일위험요인의 공통점은, 한국이 아시아의 다양한 인종이 유입되면서 형성되는 다인종·다문화사회의 과정과 통일과정을 통해서 북한 주민과 동일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정을 유사한 과정으로 인식
- 해외 전문가들의 응답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에 따르면 상관관계의 크기와 방향에서 국내 전문가들의 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별도의 논의는 하지 않고 표만 제시함

한국사회가 전통적인 사회구조에서 국제화를 통한 대외적 요인이 부가되고 통일을 통한 새로운 통합국가가 형성되어도 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으로부터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8〉 사회·문화 영역 위험요소 구조방정식 모델(해외 전문가 설문조사)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의 차이는
국내 전문가들은
지역갈등을
해외 전문가들은
계층갈등을 높은
위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제외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이버
범죄와 통일 이후
시장경제로의 통합을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한다



4. 결론

- 한반도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요소 10가지를 확정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안보 문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그 한계점과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가함
 - 첫째, 분석결과 사회·문화 영역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한반도 위험요소로 전통적인 지역갈등, 그리고 현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급증, 그리고 미래 통일한국에 나타날 시장경제로의 효과적인 통합
 - 둘째, 사회·문화 영역에서 한반도의 안보위험요소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인식에 큰 차이가 존재하기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이 존재
 -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의 차이는 국내 전문가들은 지역갈등을 해외 전문가들은 계층갈등을 높은 위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제외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이버 범죄와 통일 이후 시장경제로의 통합을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

- 대외위험요인과 통일위험요인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가지는 요인으로 대외위험요인과 통일위험요인은 문제를 서로 악화시키기보다는 완화시키는 관계에 있음에 반해서, 전통적으로 존재해오던 대내적 위험요인은 현재의 국제화와 다문화사회에서 오는 위험과 통일 한반도의 통일국가에도 여전히 상존하면서 다른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작용
- 한반도 사회·문화 영역의 위험요소에 대한 정책 대안은 장·단기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
 - 장기적 정책적 대응은 다원주의의 열린사회로의 발전이 장기적인 대안으로 한국사회가 직면해왔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사회·문화적 위험요소의 핵심은 정치적 소수자의 형성과 관련
 - 기존의 정치적 소수자가 지역, 이념, 소득에 의해서 구분되었다면 현재의 위험요소를 구성하는 정치적 소수자는 해외 이주민과 문화적 소수자 그리고 미래의 정치적 소수자는 통일로 인해 생겨나는 북한 주민들이 될 수 있음
 - 민주주의가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시민사회 내부에 다양한 이익집단이 형성되는데 이들 집단 사이의 경쟁에 의해 국가정책이 결정되는 다원주의(pluralism) 사회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소수자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원칙적으로 권력은 국가 내의 다양한 사람과 집단들에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서 소수에 의한 지배가 가능할 때, 사회적 위험요인이 감소
 - 다원주의 사회의 지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과정에 다원주의사회가 가지는 취약점으로 권력을 사실상 다양한 집단이 공유하여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사회집단이 다양한 축으로 구분되는 만큼 중복적인 정체성을 가지는 구성원이 증가함으로써 사회갈등의 요소가 감소하게 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
 - 개인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다원주의적 사회제도가 잘 운영된다면 개인의 의사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성되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사회·문화 영역에서 한반도 위험요소를 감소시키는 방안은 국가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줄이고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추구
 - 사회·문화적 위험요소의 단기적인 원인은 소수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불평등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은 국가가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정책 개발의 필요
 - 기존의 사회·문화적 위험요소로 평가되었던 계층, 지역, 이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추가하여 해외이주민과 탈북자를 배려하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구축 및 재정비하는 것은 사회·문화 영역의

민족주의가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시민사회 내부에 다양한 이익집단이 형성되는데 이들 집단 사이의 경쟁에 의해 국가정책이 결정되는 다원주의(pluralism) 사회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소수자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원칙적으로 권력은 국가 내의 다양한 사람과 집단들에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서 소수에 의한 지배가 가능할 때, 사회적 위험요인이 감소한다

-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대안
- 사회보장이라는 용어자체가 서구에서 처음 생겨날 때, 사회적인 불안을 없게 한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현재에 와서는 사회적 불안을 소극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불안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접근이 필요함
 - 한반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사회구성원들이 직면하는 새로운 종류의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적 대안의 마련이 사회·문화적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것임

주석

- 1) 조성권, “초국가적 위협: 테러, 마약, 범죄조직의 상호연계,” 『JPI정책포럼』 No. 2012-12(제주: 제주평화연구원, 2012), p.11.
- 2) 위의 글, pp.10-11.

❖ 저자 약력

■ 이성우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 및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강윤미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